

여수세계섬박람회 ‘보임DAY’ 흥행몰이…5만명 인파 운집

보임그룹 20주년 기념 시민 무료입장
개막 후 최다 관람객 상생 축제 우뚝
미디어파사드·진해성 콘서트 등 후끈
상가 매진 행렬…교통·안전관리 호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 향토기업의 나눔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거대한 시민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키며 흥행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21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주행사장에서 열린 제1호 기업·시민 상생 행사 ‘보임DAY’에 5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는 박람회 개막일 인파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금까지 집계된 1일 최다 관람객 기록이다.

행사는 여수 향토기업인 보임그룹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자체 기념식 대신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고 섬박람회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보임그룹은 여수시민과 지역 근로자, 가족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제1호 기업·시민 상생 행사인 ‘보임DAY’에 참가한 시민들이 무대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제공〉

에게 박람회장을 전면 무료 개방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개장과 함께 매표소 앞에는 신분증을 든 시민들의 줄이 이어졌다. 공식 캐릭터 ‘다섬이’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보물섬 투어를 마친 관람객에게 굿즈를 나눠주는 다섬이 트럭 이벤트가 진행됐다.

포토스팟 사진을 인증하면 피크닉 세트를 주는 ‘해피아워·섬 피크닉’이 이어지면서 주제섬

잔디광장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으로 가득 찼다.

세계 30개 해외 지방정부와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국제교류섬의 갈라파고스·산토리니 전시는 관람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미션형 전시관 보물섬에서는 미끄럼틀로 볼풀 바다에 뛰어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해 질 무렵 ‘보임DAY’의 공식 행사에서 20m 높이의 주제섬 미디어파사드에 시민들이 사진

신청한 감사와 응원의 편지가 송출됐다.

야간콘서트에서는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인기 가수 진해성과 양지은이 무대에 올라 열창했고 객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람회장 수로에는 시민들의 소원을 담은 수많은 LED 배가 띄워져 장관을 연출했다.

아울러 스마트폰과 지역화폐 등 2천만원 상당의 대규모 경품 추첨 이벤트가 더해져 열기를 최

광양 구봉산 랜드마크 ‘파노라마 워크’ 베일 벗었다



473m 정상에 27m 높이 나선형 구조물

내달 9일부터 1개월 사전예약 시범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지역을 상징하는 제형형 전망 랜드마크 ‘파노라마 워크’(사진)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10월8일 제막식을 시작으로 10월9일부터 11월8일까지 한 달간 파노라마 워크를 사전예약제로 시범 운영한다.

예약은 이날 오전 9시부터 ‘MY광양’ 앱을 통해 진행했으며 안전을 위해 관람 인원을 시간당 200명으로 제한했다.

‘빛과 철의 도시 광양’을 주제로 설계된 조형물은 해발 473m 구봉산 정상에 높이 27m 은빛 나선형 구조물과 300m 길이의 보행 램프로 구성됐다. 스페인 출신 건축가 마누엘 몬테세린이 철의 강인함과 빛의 역동성을 곡선으로 설계했

다.

방문객들은 램프를 오르며 숲과 광양만의 풍경을 다각도로 마주하게 된다. 정상부에서는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 섬진강 하구 등 300도 파노라마 조망이 펼쳐진다.

구조물은 해안 환경에 강한 고내구성 스테인리스 소재와 내진 철골 구조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노약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형 승강기도 함께 설치됐다.

개장 첫날인 10월9일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특별 관람을 진행하며 광양시청 누리집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무료 시범운영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파노라마 워크는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광양만의 정체성을 구현한 포스코와의 상생 결실”이라며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매력적인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장성군, 하천 불법점용 450여곳 연내 복구

상행위 시설·평상·그늘막·적치물

영농 시설은 영농기 이후로 유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은 21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450여곳의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 불법 시설물을 올해 안으로 전면 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인근에 허가 없이 들어선 상행위

시설과 평상, 그늘막, 적치물, 불법 경작지 등이다.

군은 심우정 장성부군수를 단장으로 TF를 꾸렸으며 하천법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연계해 복구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 유수를 방해하는 시설은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철거를 진행하며 철거 명령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 불법 영농시설에 대해서는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가 끝나는 시점 이후로 복구를 유예하고 있다.

군은 적발된 시설의 소유·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된 구역에는 필요시 안내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불법 행위 재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조치가 회색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점검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군민 모두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풀뿌리공동체센터, 특별시 마을공동체 우수 사례 선정

센터 지원 죽림마을도 수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21일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최근 전남광주특별시 주관 2026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선정에서 시·군 우수센터 부문 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가 지원한 죽림마을도 우수사례 부문 우수상에 선정되면서 센터와 지원 공동체가 2년 연속 나란히 수상했다.

〈사진〉

죽림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해 기록으로 남기며 공동체 기반을 다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마을활동가와 함께 현장을 정기적으로 살펴며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단계별로 지원해 이 같은 성과를 뒷받침했다. 현재 센터는 담양형 풀뿌리공동체 디딤돌



사업, 농촌인재학교 등 마을의 성장 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28일 여수시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 열리는 2026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양순에 센터장은 “주민과 마을활동가, 센터 직원이 한마음으로 땀 흘려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며 “마을 상황과 필요를 가까이에서 살펴

곡성군, 블루베리 고품질 재배 역량 강화

김제 스마트팜 선도 농가 방문 학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최근 제16기 명품농업대학 블루베리 스마트팜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선도농가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견학은 참가자들이 첨단 스마트농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우수 사례를 분석해 블루베리 재배 실무와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

교육생들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둘러봤다.

이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운용 현장을 살펴며 첨단 농업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렸다.

선도농가 방문에서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정밀 환경 관리와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실제 농업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했다.

견학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이론으로만 접했던 융복합 기술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수 사례 교육을 지속 추진해 지역 농가의 고품질 재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보성군 ‘웅치면민의 날·올벼쌀 문화축제’ 성료

옛 웅치초교 만민·향우 500여명 참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21일 “최근 옛 웅치초등학교에서 제34회 웅치면민의 날 및 제6회 웅치 올벼쌀 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출향 향우 등 500여명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웅치면민회가 주최한 축제는 폐교된 교묘에서 열려 확장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행사장 소나무숲에 300m 길이의 순환형 맨발 산책길이 정식 개장하며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발전에 헌신한 문동균씨



가 면민의 상을, 오형호·박점순씨가 장수상을 받았다. 지역 인재로 선정된 이강민 학생 등 4명에게는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한중길 웅치면민회장은 “축제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산품인 웅치 올벼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옛 장흥교도소 ‘빠빠용Zip’ 가을 문화행사 풍성

장터·축하공연·봉숭아 물들이기 등

고예나 작가 북토크·버블아트 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21일 “문화예술평화공간인 ‘빠빠용Zip’(옛 장흥교도소·사진)이 추석과 가을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제 옛 교도소 시설을 활용한 빠빠용Zip은 넷플릭스 ‘더 글로리’, ‘자백의 대가’ 등 120여편의 영상물이 탄생한 명소로 교정 역사 관람과 글감옥 글쓰기 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로컬 대안 장터인 서로살장을 비롯해 축하 공연, 에어바운스 등이 어우러진 청년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추석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4일까지는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봉숭아 물들이



기 체험이 진행된다.

또한 10월9일 한글날에는 100주년을 기념해 장흥 출신 고예나 작가의 북토크, 한글 주제 체험 프로그램, 버블아트 공연 등이 포함된 한글 놀이터, 빠빠용Zip 행사가 열린다.

시순문 장흥군수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방문객들이 이색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